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회의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회의에 참석하시였다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가결된 위대한 실재도마바 총성의 200일전투의 총돌격전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회의가 6월 29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이번에 소집된 최고인민회의는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전환기의 요구에 맞게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빛내이며 우리의 국가정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킴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 모든 국가활동을 지향시켜나가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만수대의사당 회의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법상이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이

참가하였다.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과학, 교육, 문화예술, 보건, 출판보도부문 일군들이 회의에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였다.**

김영남동지, 황병서동지, 박봉주동지, 최봉태동지, 김기남동지, 리명수동지, 박영식동지, 양형섭동지, 리수용동지, 김경태동지, 리만진동지, 오수용동지, 박법기동지, 김영철동지, 김원홍동지, 최부일동지, 로두철동지, 리용호동지, 임철용동지, 김수길동지, 박태성동지, 김능오동지, 조연준동지, 리병철동지, 노광철동지, 김영태,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성원들이 주석단에 자리를 잡았다.

최고인민회의의 의장과 부의장들이 의장직에 앉았다.

최대부의장이 개회사를 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회의의 의안을 결정하였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
2.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함에 대하여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를 구성함에 대하여
4. 조선로동당이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철저히 수행할데 대하여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 내함에 대하여
6. 조직문제

회의에서는 첫째 의정이 토의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한 보고를 양형섭대의원이 하였다.

첫째 의정에 대한 최고인민회의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안을 승인함에 대하여》가 채택되였다.

회의에서는 둘째 의정이 토의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하는 연설을 김영남대의원이 하였다.

그는 전체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담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할것을 최고인민회의에 정중히 제의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공화국의 최고수위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실데 대한 제의는 전체 대의원들과 참가자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았다.**

**회의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시였음을 엄숙히 선언하였다.**

순간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회의장을 직감하였다.

회의에서는 셋째 의정이 토의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의 제의에 따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황병서대의원, 박봉주대의원, 최봉태대의원,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김기남대의원, 박영식대의원, 리수용대의원, 리만진대의원, 김영철대의원, 김원홍대의원, 최부일대의원, 리용호대의원이 선지되었다.

회의에서는 넷째 의정이 토의되였다.

조선로동당이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철저히 수행할데 대한 보고를 박봉주대의원이 하였다.

이어 김만수대의원, 리무영대의원, 김홍철대의원, 최철만대의원, 김수길대의원이 토론하였으며 리용호대의원, 리영철대의원, 김기성대의원, 양승호대의원, 윤재철대의원, 김진국대의원, 강영철대의원, 최일봉대의원, 김경준대의원, 최광근대의원이 서면토론을 제기하였다.

토론자들은 우리 당과 혁명발전에서 력사적인 이정표를 아로새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맞게 경제강국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국가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고 인민생활에서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전략이 제시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3 번 으 로 계 속

